

기회형 창업자와 생계형 창업자의 인식을 반영한 창업생태계 활성화 방안: IPA 및 추세 분석

박지영*, 남장우**

< 목 차 >

I. 서론	IV. 연구 결과
II. 이론적 배경	4-1. 인구통계학적 분석 및 집단비교
2-1. 창업생태계	4-2. 창업지원제도 IPA검증
2-2. 창업생태계의 구성요소	4-3. 창업지원제도 중요성-성취도 매트릭스
III. 연구 방법	4-4. 기존 연구를 바탕으로 한 추세분석
3-1. IPA분석	V. 결론 및 제언
3-2. 추세연구 및 정책변동 이론	5-1. 연구 결과 요약
3-3. 연구대상	5-2. 창업생태계 개선방안 제언
3-4. 측정도구 및 방법	5-3. 시사점
	5-4. 한계점 및 향후 과제
	참고문헌
	Abstract

< 요약 >

본 연구는 한국 창업 생태계의 구성 요소와 그 중요도 및 성취도를 IPA 기법을 통해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각 요소의 중요성과 성취도 간의 차이를 확인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연구 결과, 창업자들이 인식하는 각 요소의 중요도와 성취도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엔젤 투자, 벤처투자 및 창업 지원 정책의 홍보에 있어 성취도를 높일 필요가 있음을 밝혔다. 또한 실패 시 사회 안전망의 보강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추가로 기존 연구를 바탕으로 인식 개선 여부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연구는 창업 생태계를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정책 개선 방향을 제시하며, 이를 통해 창업 기업의 생존율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키워드 : 창업생태계, 창업자인식, IPA분석, 기회형창업자, 생계형창업자

* 제1저자, 단국대학교 미래 ICT융합 창업학과 ICT 경영학 전공 박사과정, mariapij@hanmail.net

** 교신저자, 단국대학교 미래 ICT융합 창업학과 창업벤처학 전공 박사과정, jangwoo.nam@dankook.ac.kr

• 논문투고일 : 2024-06-14. • 수정일 : 2024-09-28. • 게재확정일 : 2024-09-30.

I. 서 론

창업은 전 세계적으로 일자리 창출과 경제 성장의 중요한 엔진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많은 국가들이 창업을 경제 전략의 핵심으로 삼아 정책적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특히 미국은 2009년과 2011년에 각각 ‘지속 가능한 성장과 양질의 일자리 견인’ 및 ‘경제성장 과 번영 확보’를 목표로 ‘Startup America Initiative’와 ‘ScaleUp America Initiative’를 발표했다(조만석, 김선우, 2017). 이 정책들은 미국 내에서 2010년 이후 약 1,55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했으며, 2015년 한 분기에만 889,000개의 일자리가 추가로 생겼다(조만석, 김선우, 2017). 또한, 액셀러레이터 수는 170여 개로 증가하였고, 벤처캐피탈 투자 규모는 200% 성장했다(조만석, 김선우, 2017).

이후로도 미국을 비롯한 주요 국가들은 창업 생태계 강화를 위해 정책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왔다. 특히 2020년대 들어 미국은 창업 지원 정책을 통해 지속적인 성장을 이루었으며, 2021년에는 벤처캐피탈 투자 규모가 3,000억 달러를 돌파했다(김민정, 2024). 유럽연합(EU) 또한 ‘European Innovation Council’ 등을 통해 2024년 워크 프로그램을 추진하면서 2027년까지 100억 유로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며, 유럽 내 유니콘 기업 등을 육성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정보통신산업진흥원, 2024). 이러한 세계 각국의 창업 지원 정책들은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의 확산과 함께 경제 성장의 중요한 축을 형성하고 있다.

한국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실업률 증가와 경제 침체를 경험하면서 창업을 경제 활성화와 국가 신성장동력 확보의 중요 요소로 채택했다. 다양한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창업 지원사업을 진행 중이며, 2024년 약 3조 7,121억 원의 예산을 창업 지원에 투입하고 있다(중소벤처기업부, 2024). 그러나 창업 기업들은 창업지원사업에 대한 정보 부족과 활용 수준의 낮음으로 인해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정도범, 2020).

이와 대조적으로, 창업 3년 후의 생존율은 2023년 기준으로 33.8%에 불과해 OECD 국가 중 평균 이하로 나타났다.(연합뉴스, 2023) 이는 스웨덴(63.3%), 벨기에(62.5%), 미국(50.2%)와 비교하면 현저히 낮은 수치다.

한국의 창업 지원 정책은 이명박 정부 시기에 창업 인프라 조성에 중점을 두었으며, 박근혜 정부는 창조경제를 기반으로 한 창업 활성화와 저변 확대를 추진하였다. 문재인 정부는 창업 국가 건설을 목표로 창업 정책의 다양화를 추진하였다. 2021년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창업지원계획(2021년~2023년)”을 발표하면서 “디지털 대전환을 선도하는 세계 최고 혁신 창업 국가”를 비전으로 설정하였다(중소벤처기업부, 2021).

창업 생태계는 기업가가 창업을 시작하고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구성하는 다양한 요소

들의 집합이다. 이는 정부 부처들이 자금 지원뿐만 아니라 규제 완화,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네트워킹 기회 제공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형성하고 유지하는 것이다(Ronstadt, 2007; 김소연, 조민경, 이무원, 2020). 창업 생태계의 핵심 요소로는 시장 접근성, 자본의 유동성, 인적 자원, 정부의 정책 지원, 기술적 인프라 등이 포함된다(Mack & Mayer, 2016; Audretsch & Belitski, 2017; Cohen, 2006; Mason & Brown, 2014).

황지영과 남정민(2019)은 경쟁력 있는 기회 인식을 창업의 시작이자 성공적인 창업에 필수적인 역량으로 보았으며, 윤성만과 성창수(2023)는 예비창업 단계에서 기회를 핵심 요소로, 창업가의 경험을 통한 기회 인식과 아이디어 개발을 성공 요인으로 지적하였다. 그들은 기회형 창업이 국가 경제 발전과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하였다.

본 연구는 창업자들이 인식하는 정부의 창업 정책의 중요도와 이들 정책의 성취도를 평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한, 창업자의 유형에 따른 정책의 중요도와 성취도 변화를 추가로 분석함으로써, 정부의 정책 변화에 따른 창업자의 요구 변화를 이해하고자 한다. 이 연구를 통해 창업자의 정책적 요구와 창업 유형에 따른 정책 요구의 차이를 분석하고, 정부 변화에 따라 이러한 요구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확인할 수 있다. 본 연구의 궁극적인 목적은 정부 정책의 효과성을 평가하고, 창업 생태계를 발전시키기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이다.

더불어, 창업 생태계 구성 요소에 대한 정책적 개선과 자원 투입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창업생태계는 다양한 요소들이 상호작용을 하는 복잡한 시스템으로, 이 중 정부의 역할은 창업가에게 필요한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다. 정부의 창업지원 정책은 직접 지원(조세 및 금융지원)과 간접 지원(창업교육, 멘토링, 판로 및 해외 진출 지원)으로 구성되며, 이러한 지원들이 창업 생태계 내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안상봉·신용준, 2017).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 창업기업의 생존율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적 대안을 제공하고자 한다. 창업생태계를 구성하는 요소에 대해 구체적인 정책 개선 및 정책자원 투입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는 데 기여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 다루는 문제를 세 가지 주요 포인트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 창업지원정책이 니즈에 맞게 자원을 분배하고 있는지 성취도와 만족도의 차이를 통해 확인하고, 이를 통해 효율적인 정책 방향을 설정할 수 있다.

둘째, 기회형 창업자와 생계형 창업자가 느끼는 만족도와 성취도의 차이를 연구하여 더 효율적인 창업지원정책을 마련할 수 있다.

셋째, 정부의 변화에 따라 창업지원정책 성취도와 만족도 변화를 비교 분석하여 자원 배분의 적절성을 확인할 수 있다.

II. 이론적 배경

2.1 창업생태계

창업생태계는 복잡한 상호작용을 하는 생물학적 생태계의 개념을 경제 활동에 적용한 것으로, 창업자, 창업지원기관, 투자자, 고객, 공급자 등 다양한 행위자들이 상호 작용하는 복합체로 설명된다(Cavallo, Antonio & Raffaello, 2019; Neck et al., 2004; Acs et al., 2014). Vogel(2013)은 창업생태계를 창업 활동을 촉진하고 지원하는 환경으로 정의하며, 이 환경은 창업자가 필요한 자원을 보다 쉽게 얻을 수 있도록 하고, 실패를 용인하는 문화를 포함한다.

창업생태계는 경제 성장, 혁신 촉진, 그리고 지역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Moore(1993)는 기업 간, 기업과 환경 간의 상호작용을 창업 생태계의 핵심 요소로 보고, 이를 통해 경제적 가치가 창출되며 지속 가능한 발전이 이루어진다고 강조한다. Mason과 Brown(2014) 및 이우진 외(2020)는 창업생태계가 창업자의 성공뿐만 아니라 실패 후 재기를 가능하게 하는 지원 시스템을 제공하여 창업 활동의 지속 가능성을 높인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환경은 창업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줄이고, 예비 창업자가 창업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2.2 창업생태계의 구성요소

창업생태계는 다양한 연구자들에 의해 여러 구성 요소로 세분되어 설명되었다. Van de Ven(1993)에 따르면, 창업생태계는 기초 과학적 지식, 자금 조달, 유능한 인력과 같은 공공 자원을 포함하며, 창업 기업의 연구개발, 제조, 마케팅, 유통 활동을 아우른다(Stam & Van de Ven, 2018). Cohen(2006)은 지속 가능한 창업생태계 구축을 위해 공식·비공식 네트워크, 정부, 대학, 자본 서비스, 인적 자원, 전문 및 지원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Isenberg(2011)은 금융 자본, 시장, 인적 자원, 문화, 정책, 지원 등의 요소를 창업생태계의 복잡성을 강조하며 필수적으로 꼽았다.

Feld(2012)는 창업가, 멘토, 인재, 정부, 금융 등이 상호작용하며 가치를 창출하는 과정에 중점을 두었다. Stam(2015)은 창업생태계를 리더십, 네트워크, 자본, 인재, 지식, 지원기관 등의 시스템 요소와 물리적 인프라, 문화, 공공기관 등의 프레임워크 요소로 구분하며, 이러한 요소들이 가치 창출과 창업 활동으로 이어지며 선순환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Bell-Masterson & Stangler(2015)는 창업생태계의 활력을 밀도, 유동성, 연결성, 다양성의 지표로 측정하였다. Spiegel(2017)은 창업생태계를 사회적, 물리적, 문화적 요소가 지역적으로

상호 연결된 유기적인 관계라고 설명하며, 이러한 요소들이 상호 지원하는 문화, 유능한 인력, 투자 자본, 네트워크 등을 통해 지속되고 재생산된다고 주장했다. 최근에는 Stam과 Van de Ven(2021)이 자원적, 제도적 측면에서 10가지 요소를 재구성하며, 이들 요소가 상호작용하며 생산적인 기업가정신을 창출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같이 창업생태계는 연구자에 따라 세부적인 구성요소에 대한 인식이 다르게 나타나지만, 구성요소를 이루는 것이 대체로 복잡하며, 상호작용, 연결성, 다양성, 선순환 작용 등 요소 간의 작동 원리도 다방향으로 작동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선행 연구에 대한 개요는 아래 <표 1>에서 확인할 수 있다.

<표 1> 창업생태계 구성요소 선행연구 분석

연구자	구성요소	작동원리
Van de Ven(1993)	기초 과학적 지식, 자금조달, 유능한 인력, 공공자원, 창업기업의 연구개발, 제조, 마케팅, 유통 활동	-
Cohen(2006)	공식 및 비공식 네트워크, 정부, 대학, 자본 서비스, 인적자원, 전문 및 지원 서비스	-
Isenberg(2011)	금융자본, 시장, 인적자원, 문화, 정책, 지원	복잡성
Feld(2012)	창업가, 멘토, 인재, 정부, 금융	상호작용
Stam(2015)	리더십, 네트워크, 자본, 인재, 지식, 지원기관, 물리적 인프라, 문화, 공공기관	가치창출과 창업활동을 통한 선순환 작용
S t a n g l e r 와 Bell-Masterson(2019)	-	밀도, 유동성, 연결성, 다양성
Stam과 Van de Ven(2021)	교육, 문화, 네트워크, 물리적 인프라, 창업자 요구, 재능, 지식, 리더십, 금융, 중재자	상호작용

2.3 기회형 창업과 생계형 창업

황지영과 남정민(2019)에 따르면, 2001년 Global Entrepreneurship Monitor(GEM) 보고서는 창업자를 생계형과 기회형으로 구분하였다. Hessels et al.(2008)은 필요 동기에 의한 창업가가 고용 불만족과 직업적 제한으로 인해 사업을 시작한다고 보고하였으며, 기회형 창업가는 개인적 동기와 독립적 관점에서 사업을 시작한다고 하였다. 생계형 창업자는 고용의 불안정과 같은 푸시(Push) 요인에 의해 동기부여가 되며, 기회형 창업가는 자율성, 도전, 수입 기대와 같은 풀(Pull) 요인에 의해 동기부여가 된다고 설명하였다.

Safa et al.(2020)은 기업가의 동기가 외부와 내부 환경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고 언급하였지만, 각 요인이 어느 정도로 영향을 미치는지는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고 지적하였다.

Ⅲ. 연구 방법

3.1 IPA 분석

본 연구에서는 IPA(Importance-Performance Analysis) 방법을 활용하여 국내 창업생태계 구성요소의 우선순위를 도출하였다. Martilla와 James(Martilla & James, 1977)의 연구에 따르면, IPA 기법은 중요도와 성취도의 도출된 결과를 활용하여 4가지 차별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하게 한 분석방법이다. 각 데이터를 좌표로 표시하여 4분면에 나타나는 위치에 따라 대응 전략을 도출할 수 있다.

<그림1>에서 보이듯, 중요도는 높으나 성취도가 낮은 영역은 취약 항목으로, 이는 최우선으로 투자 또는 개선이 요구되는 항목이다. 중요도와 성취도가 모두 높은 영역은 강점 항목으로, 현재의 상태 유지가 필요하다. 반면, 성취도는 높으나 중요도가 낮은 영역은 불필요한 강점 항목으로, 과잉투자가 이뤄지고 있지 않은지 검토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중요도와 성취도가 모두 낮은 영역은 투자 우선순위가 낮은 항목으로, 이들에 대한 불필요한 투자를 피해야 한다.

이 분석을 통해 효율적인 자원 배분과 전략적 의사결정을 지원하며, 창업 생태계 내에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명확하게 식별할 수 있다.

<그림 1> IPA 매트릭스



3.2 추세연구 및 정책변동 이론

Taris(2000)는 추세연구를 동일한 샘플링 단위 집합에 대해 최소 두 번 이상 데이터를 수집하여 시간에 따른 비교를 가능하게 하는 연구로 정의했다. Ancona et al.(2000)는 시간 단위 연구가 맥락에 대한 풍부한 이해를 제공하며, 새로운 설명과 예측의 기회를 제공한다고 주장했다.

본 연구는 한국의 행정부에 따른 추세연구를 추진하고자 한다. 김민희(2018)는 정책 변동 이론에서 정책 활동가(선도자) 요인이 중요하게 다뤄진다고 언급했으며, 장현주(2017)는 한국에서 행정부의 정책 결정자가 정책을 선도하는 자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고 보고했다. 이를 바탕으로, 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 윤석열 정부의 정책 변동을 중심으로 추세 연구를 실시할 계획이다.

3.3 연구대상

본 연구는 2024년 5월 27일부터 6월 5일까지 10일간 온라인을 통해 창업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총 106명이 응답하였다. 2022년에 설문에 응답한 315명 중, 이번 연구를 위해 재응답한 45명을 포함하였다.

이전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기업가의 동기가 외부 및 내부 환경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생계형 창업자와 기회형 창업자의 동기 요인이 다르기 때문에, 이 두 그룹을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기회형 창업자는 75명, 생계형 창업자는 31명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종단적 추세 연구의 일환으로 시간에 따른 변화를 조사하는 것이며, 동일 대

상을 반드시 조사할 필요는 없다. Asendorpf et al.(2001)에 따르면 대부분의 종단 연구에서 참가자의 탈락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편향을 일으킬 수 있다. 그러나 누락된 데이터를 대체하는 것은 통계적으로 유효하다고 알려져 있다. 따라서 동일 특성의 창업자를 고려하여 연구 대상을 구성하였다.

추가로,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추가 설문을 실시하여 응답자의 특성을 확인하였다.

3.4 측정도구 및 방법

본 연구는 창업생태계의 중요도와 성취도를 조사하기 위해 Isenberg(2011)와 2016년 글로벌 기업가정신 트렌드 리포트(Kim et al., 2016)의 문항을 참조하였다. 이에 더하여, 김수진, 서경란, 남정민(2022)의 이전 연구에서 설문에 참여한 218명 중 45명이 회신한 데이터를 추가로 분석하였다.

설문은 총 52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이 중 38개 문항은 19가지 요소의 중요도와 성취도를 측정하기 위한 것이고, 9개 문항은 응답자의 창업 여부 등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것, 나머지 5개는 기회형 및 생계형 창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문항이었다. 조사된 요소는 '정책', '문화', '지원', '시장', '인재', '금융'의 6가지 범주로 나뉘며, 각 범주는 다양한 하위 요소를 포함한다. 정책 범주에서는 회사 설립의 용이성, 세금, 정부규제, 창업 실패 시 사회 안전망, 해외 시장 진출 프로그램, 창업 지원의 홍보 등을 평가하며 문화의 범주에서는 창업 후 생존 용이성, 실패 수용 문화, 출구 용이성을 평가하고, 지원의 범주에서는 기술 이전, 창업지원담당자, 창업지원기관 지원을 평가한다. 또한 시장의 범주에서는 시장 진입 용이성, 시제품 제작을 평가하고 인재의 범주에서는 대학 창업 교육, 평생 창업 교육을 하위요소로 구성했으며, 금융의 범주에서는 엔젤벤처투자, 창업자금 조달의 하위요소로 구성하였다. 문항 예시로는 “창업지원정책을 통한 회사설립 용이성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나요?”, “창업지원정책을 통한 회사설립 용이성이 얼마나 잘되고 있다고 생각하나요?” 와 같은 질문이 포함되며, Likert 5점 척도를 사용하여 응답을 측정하였다.

본 연구는 종단적 연구의 일환으로, Parlett(2014)에 따르면 수집된 데이터 간에는 양식의 일관성이 유지되어야 하며 시간 경과에 따른 일관성 또한 중요하다. 이에 따라 기존 연구의 양식을 유지하며, 정부 정책 홍보에 관한 추가 문항을 포함시켜 설문을 수행하였다.

데이터 분석은 Microsoft 365 Excel을 사용하여 창업자와 비창업자가 인식하는 창업생태계 구성요소별 중요도와 성취도의 차이를 대응표본 T검증과 매트릭스 분석으로 실시하였다. 추가적으로 추세 분석 시각화는 Matlab 2023b를 사용하여 진행하였다.

<표 2> 측정도구

구 분		문항 수
정책	회사설립의 용이성	2
	세금	2
	정부규제	2
	창업실패시 사회안전망	2
	창업지원프로그램	2
	해외진출프로그램	2
	창업지원 홍보	2
문화	창업후 생존의 용이성	2
	실패수용문화	2
	출구용이성	2
지원	기술이전	2
	창업지원담당자	2
	창업지원기관지원	2
시장	시장진입의 용이성	2
	시제품제작	2
인재	대학창업교육	2
	평생창업교육	2
금융	엔젤벤처투자	2
	창업자금조달	2
창업자 대상	업종 및 동기 등	4
	창업기간	1
기초정보	성별, 나이, 지역 등	8
	창업자 여부	1

IV. 연구 결과

4.1 인구통계학적 분석 및 집단비교

연구의 대상자는 총 106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이들의 분포는 <표 1>에 자세히 나타내었다. 대상자들의 개인적 특성을 살펴보면, 성별에 따른 분포는 남성이 80명(75.47%)이고 여성이 26명(24.53%)으로 나타났다. 결혼 유무를 비롯한 추가적인 인구통계학적 분석 결과는 <표 3>에 요약되어 있다.

<표 3> 연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구 분	기회형 창업자		생계형 창업자		응답자 합계		
	빈도(명)	(%)	빈도(명)	(%)	빈도(명)	(%)	
성별	남성	63	84.00	17	54.84	80	75.47
	여성	12	16.00	14	45.16	26	24.53
연령	20대	1	1.33	3	9.68	4	3.77
	30대	18	24.00	9	29.03	27	25.47
	40대	31	41.33	9	29.03	40	37.74
	50대	23	30.67	10	32.26	33	31.13
	60대 이상	2	2.67	0	0.00	2	1.89
결혼 유무	기혼	58	77.33	21	67.74	79	74.53
	미혼	17	22.67	10	32.26	27	25.47
거주 지역	수도권	67	89.33	26	83.87	93	87.74
	충청권	4	5.33	3	9.68	7	6.60
	영남권	3	4.00	2	6.45	5	4.72
	호남권	0	0.00	0	0.00	0	0.00
	강원권	1	1.33	0	0.00	1	0.94
학력	고졸	0	0.00	0	0.00	0	0.00
	학사	40	53.33	22	70.97	62	58.49
	석사	25	33.33	6	19.35	31	29.25
	박사	10	13.33	3	9.68	13	12.26
합 계		75		31		106	

4.2 창업지원제도 IPA 검증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국내 창업생태계의 요인별 중요도와 성취도를 분석하였다. 중요도 평균은 4.02로, 창업지원 프로그램(4.33), 실패 시 사회 안전망(4.27), 세금(4.25)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창업자들이 창업지원 프로그램과 실패 시 사회 안전망을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성취도 평균은 3.43으로, 창업기업의 설립 용이성(3.69), 외부의

기술 이전(3.68), 정부지원금을 통한 자금 조달(3.61)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요인별 중요도와 성취도의 값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대응표본 T검증과 매트릭스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4>에 상세히 제시되어 있다. 외부의 기술 이전을 제외한 모든 요소에서 중요도가 성취도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창업생태계 전반적으로 중요도에 비해 성취도가 미흡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표 4>에서 순위가 높은 요소는 시급히 대응해야 할 요소로 볼 수 있다. 특히, 실패 시 사회 안전망($t=7.3331, p<0.001$), 세금($t=7.818, p<0.001$), 시장 진입의 용이성($t=6.561, p<0.001$) 순으로 중요도 대비 성취도가 낮게 나타났다.

이 결과는 국내 창업생태계에서 중요한 요소들에 대한 향상된 지원과 개선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표 4> 창업생태계 구성요소에 대한 IPA 검증

구분	중요도	성취도	중요도-성취도 차이	t	p	순위	
정책	회사설립의 용이성	4.20	3.69	0.51	4.140	0.000	13
	세금	4.25	3.14	1.10	7.818	0.000	2
	정부규제	3.92	3.27	0.65	5.007	0.000	7
	창업실패시 사회안전망	4.27	3.16	1.11	7.331	0.000	1
	창업지원프로그램	4.33	3.52	0.81	7.333	0.000	4
	해외진출프로그램	3.92	3.46	0.45	3.393	0.001	14
	창업지원 홍보	4.08	3.28	0.80	6.435	0.000	6
문화	창업후 생존의 용이성	4.11	3.52	0.59	4.018	0.000	9
	실패수용문화	3.87	3.46	0.41	2.432	0.017	15
	출구용이성	3.91	3.36	0.55	3.267	0.001	11
지원	기술이전	3.41	3.68	-0.27	-2.088	0.039	19
	창업지원담당자	3.90	3.59	0.30	2.412	0.018	17
	창업지원기관지원	3.96	3.56	0.41	3.267	0.001	15
시장	시장진입의 용이성	4.20	3.36	0.84	6.561	0.000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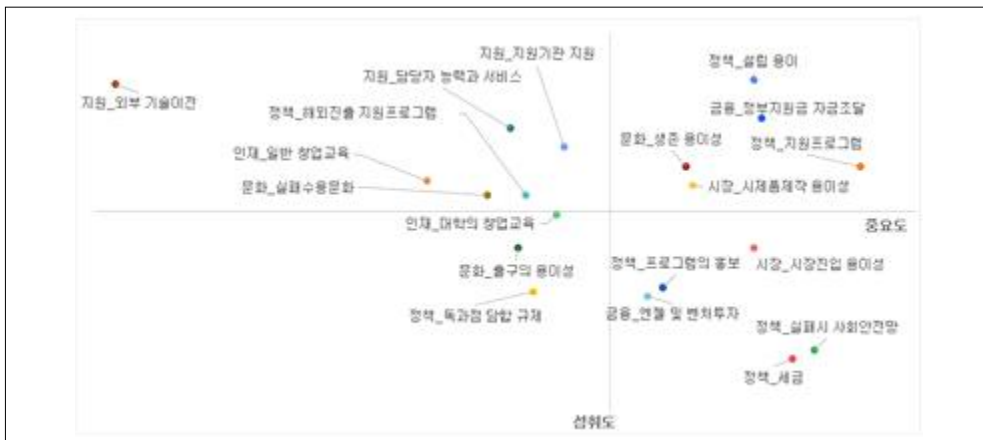
기회형 창업자와 생계형 창업자의 인식을 반영한 창업생태계 활성화 방안

	시제품제작	4.12	3.48	0.64	5.311	0.00 0	8
인재	대학창업교육	3.95	3.42	0.53	4.575	0.00 0	12
	평생창업교육	3.79	3.49	0.30	2.651	0.00 9	17
금융	엔젤벤처투자	4.07	3.26	0.80	6.092	0.00 0	5
	창업자금조달	4.21	3.61	0.59	4.760	0.00 0	10

4.3 창업지원제도 중요도-성취도 매트릭스

4.3.1 전체 응답자 대상 분석

<그림 2> 전체 응답자 IPA 매트릭스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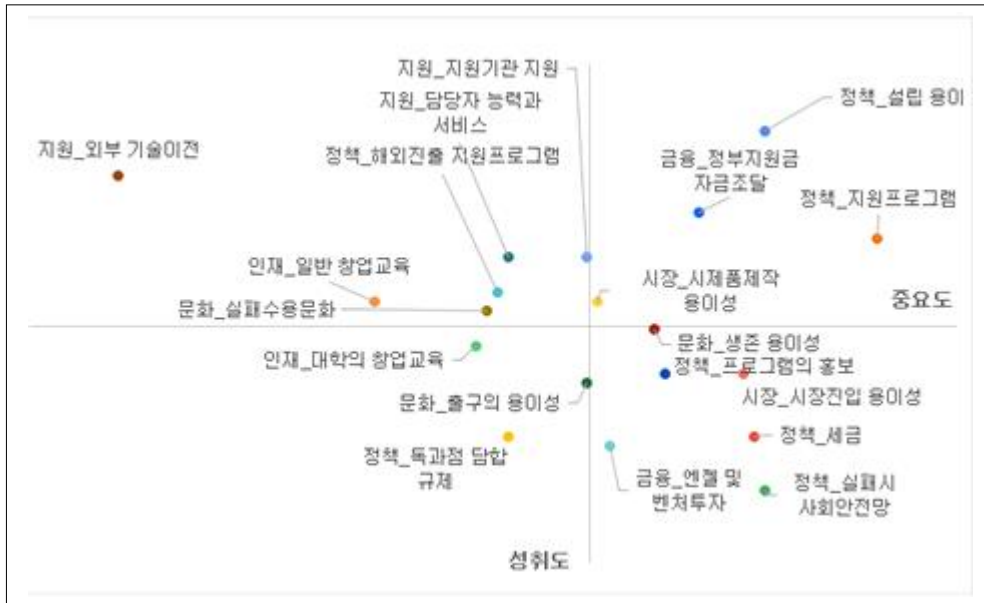


창업생태계의 중요도와 성취도를 평균을 기준으로 4사분면 IPA 매트릭스를 도출하여 분석하였다. <그림2>는 이 매트릭스를 보여준다. IPA 분석 결과, 중요도와 성취도가 모두 높아 유지해야 할 영역인 제 1사분면에는 설립에 용이한 정책, 정부지원금을 통한 자금조달, 지원 프로그램, 생존에 용이한 문화, 시제품 제작의 용이성이 포함되었다. 반면, 높은 성취도에 비해 중요도가 낮은 영역인 제 2사분면에는 평생교육 차원의 일반 창업교육, 지원기관 지원, 담당자의 능력과 서비스, 실패 수용의 문화 및 외부 기술 이전이 위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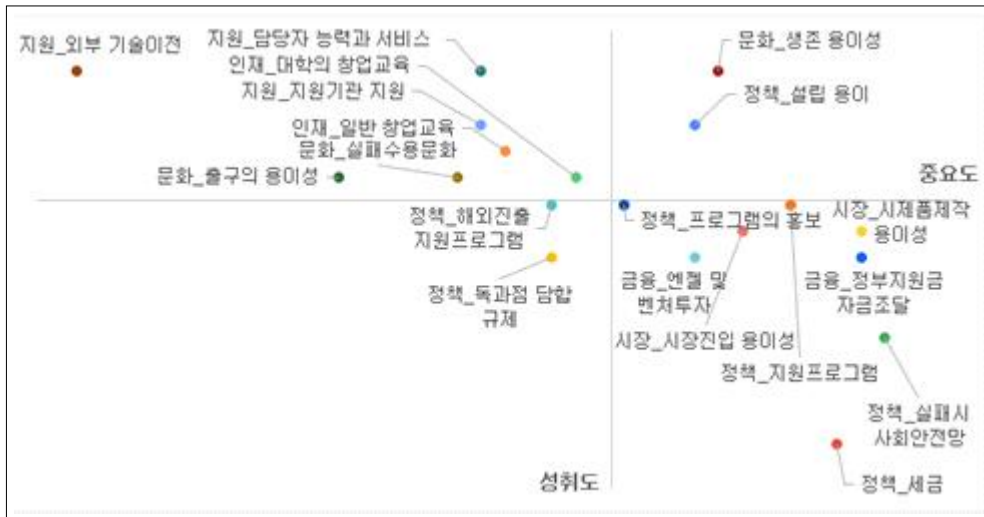
중요도와 성취도가 모두 낮아 점진적으로 개선해야 할 영역인 제 3사분면에는 독과점 담합을 규제하는 정책과 출구의 용이성, 대학의 창업교육이 포함되어 있다. 한편, 중요도는 높으나 성취도가 낮아 집중적인 개선이 필요한 제 4사분면에는 시장 진입의 용이성, 엔젤 및 벤처투자를 통한 자금 조달, 실패 시 사회안전망, 세금, 창업 프로그램에 대한 홍보가 포함되었다.

4.3.2 생계형 창업자와 기회형 창업자간 분석

<그림 3> 기회형창업자의 응답 IPA 매트릭스 분석



<그림 4> 생계형창업자의 응답 IPA 매트릭스 분석



연구에서 수행된 IPA(Importance-Performance Analysis) 매트릭스를 통해 기회형 창업자와 생계형 창업자의 창업생태계에 대한 인식 차이를 분석하였다.

기회형창업자의 응답을 매트릭스 분석한 <그림 3>과 생계형창업자의 응답을 매트릭스 분석한 <그림 4>의 IPA 매트릭스 분석의 결과는 다음을 알 수 있다.

IPA 분석 결과, 중요도와 성취도가 높아 유지 및 강화해야 할 영역인 제 1사분면에서는 모든 창업자가 설립에 용이한 정책을 중요하게 생각하였고, 기회형 창업자는 추가로 정부 지원금을 통한 자금조달, 정부 지원 프로그램, 시제품 제작의 용이성을 높게 평가하였다.

성취도가 높으나 중요도는 상대적으로 낮은 제 2사분면에서는 실패 수용 문화, 외부 기술 이전, 지원기관의 지원, 담당자의 능력과 서비스, 평생교육 차원의 창업교육 등이 포함되었다. 특히, 해외 진출 프로그램은 기회형 창업자에게는 성취도가 높게 나타난 반면, 생계형 창업자에게는 성취도가 낮게 나타났으며, 대학의 창업교육은 생계형 창업자에게 성취도가 높고 기회형 창업자에게는 상대적으로 낮은 결과를 보였다.

중요도와 성취도가 모두 낮아 점진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제 3사분면에서는 독과점 담합 규제 정책과 출구의 용이성이라는 요소가 기회형 창업자에게 나타났고, 생계형 창업자는 해외진출 프로그램이 낮게 평가되었다.

마지막으로 중요도는 높으나 성취도가 낮아 자원 투입이 필요한 제 4사분면에서는 지원 프로그램의 홍보, 엔젤 및 벤처투자, 시장 진입의 용이성, 실패 시 사회안전망 등이 생계형 및 기회형 창업자 모두에게 중요한 요소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창업 지원 정책의 효과성을 강화하고, 창업자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이다.

4.4 기존 연구를 바탕으로 한 추세분석

이번 연구에서는 설문 응답자 중 창업자들의 응답만을 분류하여, 2022년과 2024년의 변화를 분석하기 위한 추세 조사를 진행하였다. 2024년에 창업자들이 인식하는 중요도와 2022년에 응답한 창업자들이 인식한 항목별 중요도는 아래 <표 5>와 같이 차이를 보였다.

2022년에 비해 2024년에는 창업자들이 중요도를 가장 높게 인식한 항목은 회사 설립의 용이성이었다. 이어서 대학의 창업교육, 세금 정책, 실패 시 사회 안전망 순으로 인식의 변화를 보였으며, 그 다음으로는 평생교육 차원의 일반 창업 교육과 독과점 및 담합 규제 등이 뒤따랐다.

<표 5> 2022년과 2024년 창업자가 인식하는 중요도의 변화

중요도의 변화	2024	2022	차이	변화순위	유의확률
정책_설립 용이	4.20	3.99	0.21	1	0.782

정책_세금	4.25	4.07	0.18	3	0.836
정책_독과점 담합 규제	3.92	3.89	0.03	6	0.992
정책_실패시 사회안정망	4.27	4.2	0.07	4	0.298
정책_지원프로그램	4.33	4.43	-0.10	7	0.284
정책_해외진출 지원프로그램	3.92	4.02	-0.10	9	0.122
문화_생존 용이성	4.11	4.28	-0.17	12	0.039
문화_실패수용문화	3.87	4.09	-0.22	16	0.188
문화_출구의 용이성	3.91	4.12	-0.21	15	0.235
지원_외부 기술이전	3.41	3.74	-0.33	18	0.294
지원_담당자 능력과 서비스	3.90	4.06	-0.16	11	0.016
지원_지원기관 지원	3.96	4.27	-0.31	17	0.017
시장_시장진입 용이성	4.20	4.3	-0.10	8	0.152
시장_시제품제작 용이성	4.12	4.27	-0.15	10	0.902
인재_대학의 창업교육	3.95	3.77	0.18	2	0.502
인재_일반 창업교육	3.79	3.72	0.07	5	0.991
금융_엔젤 및 벤처투자	4.07	4.26	-0.19	14	0.182
금융_정부지원금 자금조달	4.21	4.39	-0.18	13	0.236

이번 연구에서는 설문 응답자 중 창업자들의 응답만을 분류하여 2022년과 2024년의 변화를 분석하기 위한 추세 조사를 진행하였다. 2024년에 창업자들이 인식한 성취도와 2022년에 응답한 창업자들이 인식한 항목별 성취도는 아래 <표 6>과 같이 차이를 보였다.

2022년에 비해 2024년에는 창업자들이 인식한 성취도가 향상된 항목으로 외부 기술 이전이 가장 두드러졌으며, 그 다음으로 실패를 수용하는 문화, 일반 창업 교육, 대학에서의 창업 교육이 뒤를 이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2022년과 2024년 창업자가 인식하는 성취도의 변화

성취도의 변화	2024	2022	차이	변화순위	유의확률
정책_설립 용이	3.69	3.76	-0.07	14	0.028
정책_세금	3.14	3.53	-0.39	18	0.498
정책_독과점 담합 규제	3.27	3.3	-0.03	10	0.119
정책_실패시 사회안정망	3.16	3.2	-0.04	12	0.686
정책_지원프로그램	3.52	3.81	-0.29	17	0.177
정책_해외진출 지원프로그램	3.46	3.49	-0.03	11	0.482
문화_생존 용이성	3.52	3.32	0.20	5	0.979
문화_실패수용문화	3.46	3.1	0.36	2	0.318
문화_출구의 용이성	3.36	3.17	0.19	6	0.028
지원_외부 기술이전	3.68	3.16	0.52	1	0.55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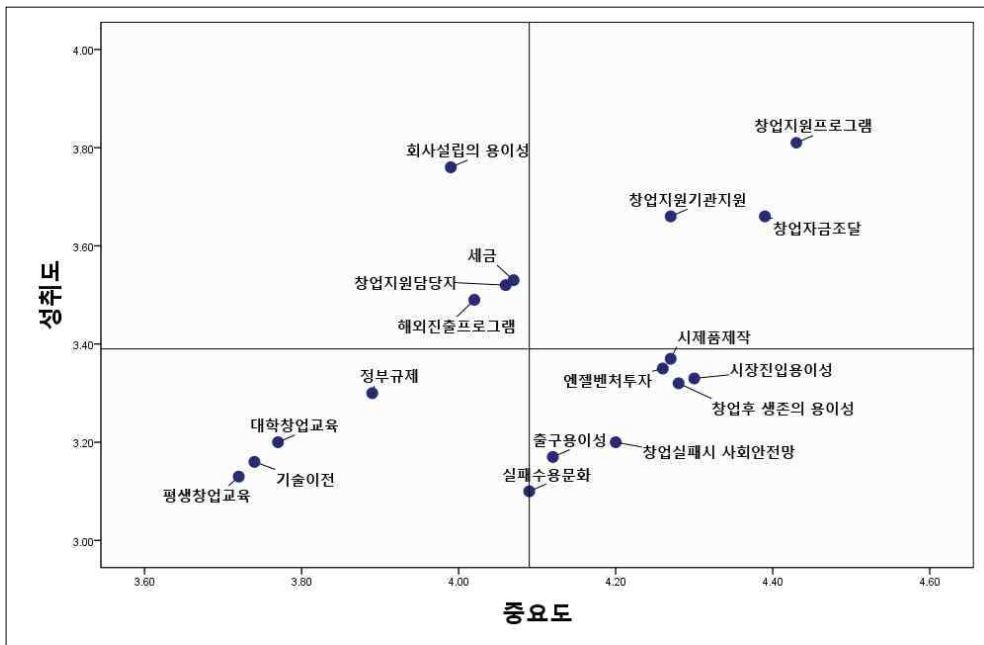
기회형 창업자와 생계형 창업자의 인식을 반영한 창업생태계 활성화 방안

지원_담당자 능력과 서비스	3.59	3.52	0.07	8	0.786
지원_지원기관 지원	3.56	3.66	-0.10	16	0.823
시장_시장진입 용이성	3.36	3.33	0.03	9	0.997
시장_시제품제작 용이성	3.48	3.37	0.11	7	0.632
인재_대학의 창업교육	3.42	3.2	0.22	4	0.479
인재_일반 창업교육	3.49	3.13	0.36	3	0.489
금융_엔젤 및 벤처투자	3.26	3.35	-0.09	15	0.523
금융_정부지원금 자금조달	3.61	3.66	-0.05	13	0.6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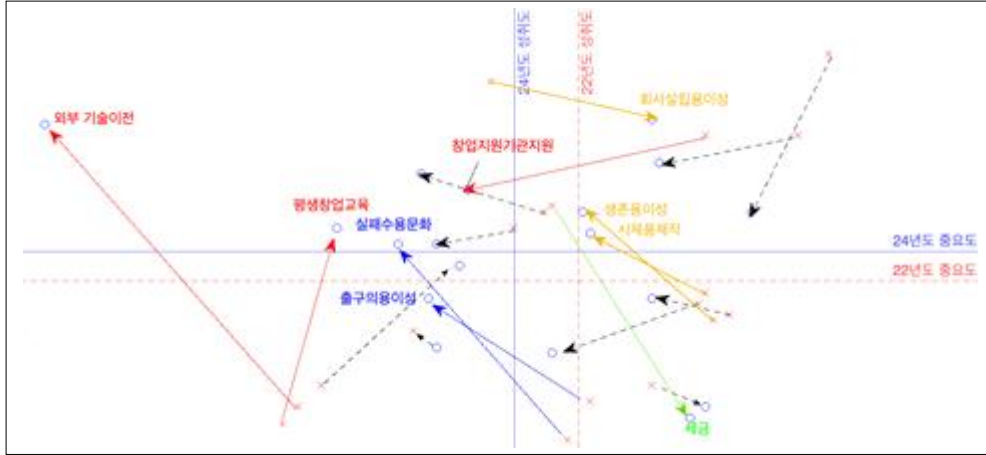
위 표에서 나타나는 2022년도 선행 연구의 IPA 매트릭스 분석 결과는 <그림 5>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2022년과 2024년의 변화를 <그림 6>에서 비교할 수 있다.

시제품 제작과 생존 용이성의 경우, 성취도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회사 설립의 용이성은 중요도 인식이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반면, 창업 지원 기관의 지원은 중요도 인식이 오히려 감소하였다. 또한, 외부 기술 이전과 평생교육 차원에서의 성취도는 증가했으나, 중요도 인식에서는 큰 차이가 없었다.

<그림 5> 2022년도 선행연구 IPA 매트릭스 분석(김수진·서경란·남정민, 2022)



<그림 6> 2022년도 선행연구와 2024년 본 연구 IPA 매트릭스 이동분석



V. 결론 및 제언

5.1 연구 결과 요약

본 연구는 창업자를 대상으로 창업 생태계 구성 요인에 대한 중요도와 성취도를 분석하여 창업 생태계 개선 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창업 생태계의 중요도 순위는 다음과 같다: (1) 창업 지원 프로그램(4.33), (2) 실패 시 사회 안전망(4.27), (3) 창업 기업에 대한 세금(4.25), (4) 정부 지원금을 통한 자금 조달(4.21), (5) 기업 설립 용이성(4.20)과 시장 진입 용이성(4.20)이다. 반면, 기술 이전(3.41)과 일반 창업 교육(3.79)은 상대적으로 낮은 중요도로 나타났다.

창업 생태계의 성취도 순위는 다음과 같다: (1) 창업 기업의 설립 용이성(3.69), (2) 외부 기술 이전(3.68), (3) 정부 지원 자금 조달(3.61), (4) 창업 지원 기관 담당자의 능력과 서비스(3.59)이다. 반면, 창업 기업에 대한 세금(3.14)과 실패 시 사회 안전망(3.16)은 성취도가 낮게 나타났다.

창업 생태계의 중요도-성취도 매트릭스 분석 결과, 실패 시 사회 안전망, 엔젤 및 벤처 투자, 시장 진입 용이성, 세금, 창업 프로그램 홍보는 중요도 대비 성취도가 낮은 요소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해당 요소들에 대한 투입 자원의 재분배를 통해 중점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반영한 정책 방향을 수립해야 한다.

중요도와 성취도 모두 낮은 개선 영역인 3사분면 요소 중, 출구(EXIT) 용이 문화, 독과점 및 담합 규제 정책, 대학에서의 창업 교육이 있으며, 이들 요소는 성취도는 낮지만, 장기적

으로 중요도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분석되었다.

또한, 생계형 창업자와 기회형 창업자 간의 중요도-성취도 매트릭스를 비교 분석한 결과, 기회형 창업자의 경우 기업의 생존 용이성을 높이기 위한 문화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이며, 생계형 창업자의 경우 시제품 제작의 용이성을 높이기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인다.

이전 연구와 추세 분석을 바탕으로 매트릭스 간의 이동을 분석한 결과, 시제품 제작의 용이성과 실패 시 생존 용이성의 성취도가 상승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시제품 제작을 위한 사업화 지원금 예산 증가와 생존 용이성을 높일 수 있는 정책이 작동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5.2 창업생태계 개선방안 제언

본 연구에서는 창업자의 중요도와 성취도 평가를 바탕으로 IPA 매트릭스를 구성하여 창업 생태계 발전을 위한 개선 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Martilla와 James(1977)에 따르면, IPA 분석을 통해 네 가지 전략을 도출할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매트릭스 내 요소의 분포에 따라 정책적 자원 배분 전략을 구사할 수 있다. 윤지민과 허병선(2022)은 IPA 분석을 활용하여 세부 정책 사업 영역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는 실무적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고 하였다.

첫째, 창업 과정에서 실패 시 사회 안전망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도 창업 기업의 실패 시 사회 안전망에 대한 요소가 높은 중요도 대비 성취율이 매우 낮게 나타났다. 이는 현재 한국에서 창업 과정에서의 실패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부정적이며, 이를 창업자들이 크게 의식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현재 한국에서는 기업 대출 시 대표자의 연대보증 의무를 없앴으나, 안병욱 서울회생법원장의 인터뷰에 따르면 실제로 현장에서는 여전히 연대보증 의무를 요구하고 있다(매일경제, 2024). 이로 인해 많은 창업자가 창업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으며, 2022년 기업가정신실태조사에 따르면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사업(창업)을 망설이게 한다’는 응답이 50.7%로 높게 나타났다. 김선화와 백필규(2019)에 따르면, 재창업 기업의 5년 생존율은 50.8%로, 일반 창업 기업의 생존율(27.5%)보다 약 두 배 높다. 제도전 기업인의 기업가적 특성과 역량도 일반인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를 근거로, 창업 과정에서 실패한 창업자가 제도전할 수 있는 다양한 장치를 구축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작동시킨다면, 성공률이 높은 창업 생태계 구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창업 생태계 구성 요소 중 성취도와 중요도가 높은 분야에 대한 자원 투입의 효율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중요도-성취도 매트릭스에서 1사분면에 해당하는 요소는 중요도와 성취도가 모두 높기 때문에 불필요한 자원 투입을 피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1사분면에 해당하는 요소는 창업 지원 프로그램과 시제품 제작 용이성 등으로, 창업자를 대상으로 사업화 지원금을 제공하는 요소이다. 그러나, 창업자의 역량에 따라 자원 배분 시 과도한 예산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특히, 역량이 부족한 창업 기업에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좀비 기업을 양산하거나, 불필요하게 많은 예산을 사용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셋째, 창업자의 특성에 맞는 적절한 자원 투입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확인된 지원 프로그램의 중요도와 성취도 분석 결과에 따르면, 기회형 창업자의 경우 중요도와 성취도가 모두 높게 나타난 반면, 생계형 창업자의 경우 중요도는 높으나 성취도는 낮게 나타났다.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창업 지원 프로그램이 중복되지 않도록 검토하고, 수요자 중심의 창업 지원 프로그램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

넷째, 다양한 창업 지원 프로그램의 홍보가 수요자에게 적절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생계형 창업자와 기회형 창업자 모두 창업 지원 사업의 홍보에 대해 중요도는 높지만 성취도는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K-스타트업 플랫폼(www.k-startup.go.kr)’ 이나 ‘기업마당(www.bizinfo.go.kr)’ 등을 통해 다양한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매년 1월경 정부 지원 사업 설명회를 통해 홍보를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성취도가 낮다고 인식되는 것은 창업 지원의 경험이 없는 일반인이나, 창업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사람들에게 홍보가 충분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창업 지원 정책이 효과적으로 작동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로서, 프로그램 홍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정보 격차를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다양한 형태의 홍보 수단을 고민해야 한다.

5.3 시사점

본 연구의 학술적 시사점은 창업 생태계의 중요도와 성취도를 종단 연구의 일환으로 추세 분석을 수행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추세 연구는 시간과 비용의 제약이 있을 수 있으나,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변화를 확인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가치가 있다. 또한, 정부 지원 홍보 요소에 대한 중요도와 성취도 분석을 추가하여, 창업 생태계 요소를 재검토하고 새로운 요소를 제안한 점에서 학술적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실무적 시사점으로는 중요도와 성취도를 활용하여 정책적 자원 배분 및 개선 방안을 제안한 점에 있다. 다양한 창업 지원 사업에서 어느 부분에 집중적으로 예산을 투

입하고, 성취도를 높이기 위해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제안하였다. 이러한 분석은 창업 지원 정책을 고도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실무적으로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

5.4 한계점 및 향후 과제

본 연구는 창업 생태계 전반에 걸쳐 중요도와 성취도 분석을 통해 정책 자원이 적절하게 배분되고 있는지에 대한 인식을 확인하였다. 또한, 추세 연구를 바탕으로 이전 정부에서 투입된 자원의 배분이 적절히 조정되고 있는지도 검토할 수 있었다.

그러나 실제로 정책 자원의 배분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는 관련 예산 투입에 대한 실증적 연구를 통해 확인하지 못하였다. 수요자의 인식과 달리 자원 배분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으며, 이러한 분석을 통해 실제 정책 결과가 제대로 확산되고 있는지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정부 지원의 세부 요소를 분리하여 중요도와 성취도를 분석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자원 투입 우선순위를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는 중요도와 성취도의 차이를 바탕으로 우선순위를 도출하였으며, 이는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쉬운 장점이 있다. 그러나 각 요소에 대해 가중치를 반영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향후 연구에서는 Borich 방법을 통해 가중치를 반영한 우선순위를 도출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창업 생태계 개선 방안을 더욱 정교하게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는 2022년과 2024년의 차이를 비교하는 추세 연구를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추세 연구의 특성상 패널 데이터 구축이 제한적이었고, 설문 조사가 실제 창업자들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였다. 연구의 질적 향상을 위해 향후 설문 대상 선정 과정에서 업종, 연령, 지역 등 창업자의 다양한 특성을 반영하여 설문을 실시함으로써 정확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추세 연구 비교 과정에서 기존 응답자 중 일부가 탈락하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동일한 특성의 ‘창업자’를 대상으로 추가 설문을 실시하여 모수를 확보하였다. 또한, 데이터 분석 과정에서 T-검증 등의 통계적 방법론을 활용하여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창업자의 인식을 보다 정확히 반영하고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 향후 연구에서 응답자 수를 추가로 확보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1) 국내 문헌

- 김민희 (2018). 정권교체에 따른 교육복지 정책변동 분석. **교육정치학연구**, 25(3), 129-158.
- 김선화, 백필규 (2019). 재창업 중소기업 실태와 사회적기업 모델을 활용한 제도전. **중소기업포커스**, 19(25), 1-16.
- 김소연, 조민경, 이무원 (2020). 싱가포르 창업생태계 연구: Isenberg(2010) 프레임워크의 지역적 변용을 통한 질적 연구를 중심으로. **벤처창업연구**, 15(2), 47-65.
- 김수진, 서경란, 남정민 (2022). IPA 분석을 통한 창업생태계 개선방안 도출. **벤처창업연구**, 17(4), 101-114.
- 대전일보 온라인 기사 (2014). 집에서 모든 법인회사 설립 가능. 대전일보. Retrieved 2024.06.27. from <https://www.daejo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1146918>.
- 매일경제 온라인 기사 (2024). 채무면책제도 문턱 확 낮춰 재기 도울 것. 매일경제. Retrieved 2024.05.30. from <https://www.mk.co.kr/news/society/11004349>.
- 안상봉, 신용준 (2017). 우리나라 창업지원제도 현황과 발전방안. **경영사학**, 82, 149-172.
- 연합뉴스 온라인 기사 (2023). “국내 창업기업 5년 후 생존율 34%…OECD 평균보다 한참 낮아”. 연합뉴스. Retrieved 2024.05.30. from <https://www.yna.co.kr/view/AKR20230927108700003>
- 윤지민, 허병선 (2022). 포스트 코로나 시대 지방정부 관광스타트업 지원정책의 정책의제 설정 우선순위 분석 - AHP와 IPA 기법의 적용. **관광연구논총**, 34(2), 115-136.
- 이성호, 김정음, 남정민 (2020). 대학 창업교육 및 창업지원제도 분석을 통한 대학창업발전 방안 연구: D대학 창업교육 및 창업지원제도를 중심으로. **벤처창업연구**, 15(4), 151-160.
- 이우진, 오혜미, 김도현, 김종성, 김가영 (2020). 창업생태계 측정모형과 지표개발: 델파이 분석을 통한 지역창업생태계 측정지표 개발. **벤처창업연구**, 15(4), 1-15.
- 윤성만, 성장수 (2023). 공동창업의 단계별 성공요인에 관한 연구: 기회형 창업기업 사례를 중심으로. **벤처창업연구**, 18(1), 141-158.
- 장현주 (2017). *한국의 정책변동과정에서 나타난 정책선도가의 유형, 역할과 전략은 무엇인가? -Kingdon의 다중흐름모형에 대한 메타분석*. **한국정책학회보**, 26(2), 449-474.
- 정도범 (2020). 기술기반창업과 정부의 창업 지원, 그리고 향후 연구방향. **과학기술정책**, 3(2), 97-126.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2024). 유럽연합, EIC 워크프로그램 개시. **글로벌 ICT 주간동향리포**

트, 24년 2월 1주차.

조만석, 김선우 (2017). 미국 창업정책 동향과 시사점. 동향과 이슈, 29, 1-18.

중소벤처기업부 (2021). 중소기업 창업지원계획(2021~2023). Retrieved 2024.05.30. from <https://www.mss.go.kr/site/smba/ex/bbs/View.do?cbIdx=127&bcIdx=1028289>.

중소벤처기업부 (2023). '24년 정부·지자체 3조 7,121억원 창업지원. Retrieved 2024.05.30. from <https://www.mss.go.kr/site/smba/ex/bbs/View.do?cbIdx=86&bcIdx=1047053>

플래텀 온라인 기사 (2024). 2023년 벤처투자 11조원 · 펀드결성 13조원. Retrieved 2024.05.30. from <https://platum.kr/archives/222858>.

황지영, 남정민 (2019). 한국, 일본, 싱가포르 시니어 창업가의 기회형 창업수준이 창업성과에 미치는 효과: 정부 창업지원 프로그램의 조절효과. 한국창업학회지, 14(6), 271-294.

(2) 국외 문헌

Acs, Z. J., Estrin, S., Mickiewicz, T., & Szerb, L. (2014). The continued search for the Solow residual: The role of national entrepreneurial ecosystem. IZA Discussion Paper, 8652, 2.

Ancona, D. G., Goodman, P. S., Lawrence, B. S., & Tushman, M. L. (2001). Time: A new research lens.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26(4), 645-663.

Asendorpf, J. B., Van De Schoot, R., Denissen, J. J., & Hutteman, R. (2014). Reducing bias due to systematic attrition in longitudinal studies: The benefits of multiple imputa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Development*, 38(5), 453-460.

Audretsch, D. B., & Belitski, M. (2017). Entrepreneurial ecosystems in cities: Establishing the framework conditions. *The Journal of Technology Transfer*, 42, 1030-1051.

Cavallo, A., Ghezzi, A., & Balocco, R. (2019). Entrepreneurial ecosystem research: Present debates and future directions. *International Entrepreneurship and Management Journal*, 15, 1291-1321.

Cohen, B. (2006). Sustainable valley entrepreneurial ecosystems. *Business Strategy and the Environment*, 15(1), 1-14.

Feld, B. (2020). *Startup communities: Building an entrepreneurial ecosystem in your city*. John Wiley & Sons.

Kim, M., Park, J., Kim, H., Lee, S., & Kum, G. H. (2016). 2015 Global Entrepreneurship

- Trend Report; GETR. In ICSB World Conference Proceedings (pp. 1-12). International Council for Small Business (ICSB).
- Isenberg, D. (2011). The entrepreneurship ecosystem strategy as a new paradigm for economic policy: Principles for cultivating entrepreneurship. Presentation at the Institute of International and European Affairs.
- Mack, E., & Mayer, H. (2016). The evolutionary dynamics of entrepreneurial ecosystems. *Urban Studies*, 53(10), 2118-2133.
- Martilla, J. A., & James, J. C. (1977). Importance-performance analysis. **Journal of Marketing**, 41(1), 77-79.
- Mason, C., & Brown, R. (2014). Entrepreneurial ecosystems and growth oriented entrepreneurship. **Final report to OECD**, Paris, 30(1), 77-102.
- Moore, J. F. (1993). Predators and prey: A new ecology of competition. *Harvard Business Review*, 71(3), 75-86.
- Neck, H. M., Meyer, G. D., Cohen, B., & Corbett, A. C. (2004). An entrepreneurial system view of new venture creation. **Journal of Small Business Management**, 42(2), 190-208.
- Parlett, L. (2014, March). Data cleaning: Longitudinal study cross-visit checks. In SAS Global Forum (Vol. 2014, p. 1314). NIH Public Access.
- Ronstadt, R. (2007). The corridor principle and the near failure syndrome: Two generic concepts with practical value for entrepreneurs. *Industry and Higher Education*, 21(4), 247-252.
- Safa, M., Huhtamäki, J., Safa, P., Riker, T., Nasir, H., & Sharma, N. (2020). The congruency between motivation and job satisfaction in the context of an organizational environment. **Journal of Business**, 8(3), 89-96.
- Spigel, B. (2017). The relational organization of entrepreneurial ecosystems. *Entrepreneurship Theory and Practice*, 41(1), 49-72.
- Stam, E. (2015). Entrepreneurial ecosystems and regional policy: A sympathetic critique. *European Planning Studies*, 23(9), 1759-1769.
- Stam, E. (2018). Measuring entrepreneurial ecosystems. In *Entrepreneurial ecosystems: Place-based transformations and transitions* (pp. 173-197).
- Stam, E., & Van de Ven, A. (2018). Entrepreneurial ecosystems: A systems perspective (No. 18-06).
- Stam, E., & Van de Ven, A. (2021). Entrepreneurial ecosystem elements. *Small Business*

Economics, 56(2), 809-832.

Taris, T. W. (2000). A primer in longitudinal data analysis. Sage Publications.

Van de Ven, H. (1993). The development of an infrastructure for entrepreneurship.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8(3), 211-230.

Vogel, P. (2013, April). The employment outlook for youth: Building entrepreneurship ecosystems as a way forward. In Conference Proceedings of the G20 Youth Forum.

<ABSTRACT>

Activation Strategies for Entrepreneurial Ecosystems Reflecting the Perceptions of Opportunity-Driven and Necessity-Driven Entrepreneurs: Insights from IPA and Trend Analysis

Park, Jiyong*, Nam, Jangwoo**

This study aims to explore activation strategies for the Korean entrepreneurial ecosystem by reflecting the perceptions of both opportunity-driven and necessity-driven entrepreneurs. Using Importance-Performance Analysis (IPA) and trend analysis, we evaluate key components of the entrepreneurial ecosystem and analyze the perception differences between the two types of entrepreneurs. The results indicate significant differences in how opportunity-driven and necessity-driven entrepreneurs perceive the importance and performance of startup support policies, providing valuable policy implications. Specifically, opportunity-driven entrepreneurs highly evaluated the performance of funding and government support programs, whereas necessity-driven entrepreneurs emphasized the importance of social safety nets and tax policies. Based on these perception differences, this study proposes improvement strategies for the entrepreneurial ecosystem, aiming to enhance the survival rate of startups and promote sustainable growth. The findings offer critical policy insights to better support the diverse needs of entrepreneurs.

Keywords : Entrepreneurial ecosystem, Entrepreneur Perceptions, IPA method, Opportunity-Driven Entrepreneurs, Necessity-Driven Entrepreneurs

* First author, Ph.D. Candidate, Department of Future ICT Convergence and Entrepreneurship, Major in ICT Management, Dankook University, mariapjy@hanmail.net

** Communication author, Ph.D. Candidate, Department of Future ICT Convergence and Entrepreneurship, Major in Entrepreneurship and Venture Studies, Dankook University, jangwoo.nam@dankook.ac.kr